



연초 국내 무역수지 적자 심각하다

그림1. 예상보다 심각한 연초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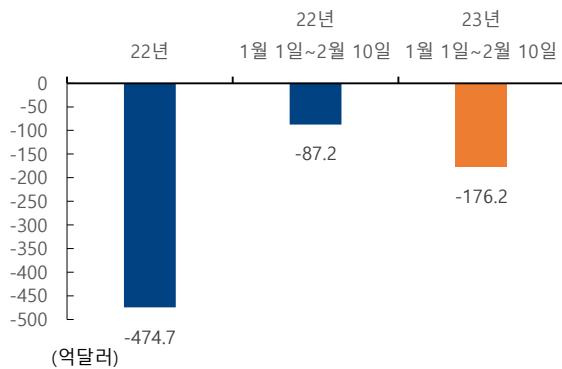


그림2.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기초도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의 또 다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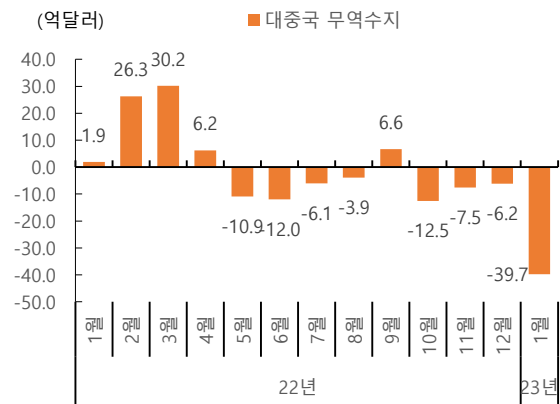


그림3. 국가별 수출증가율(2월 1일~20일 기준): 중화권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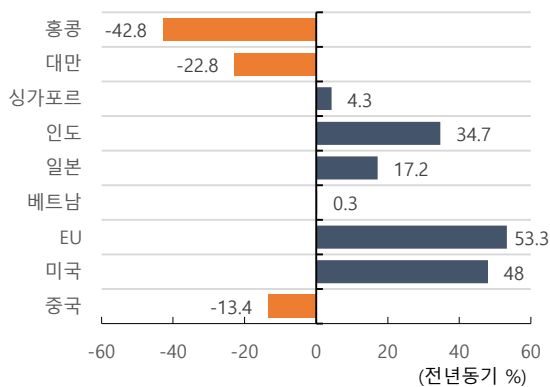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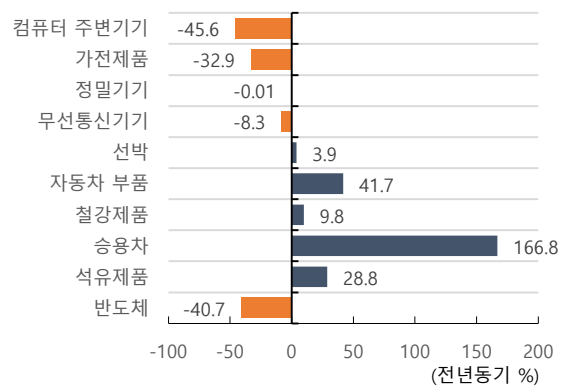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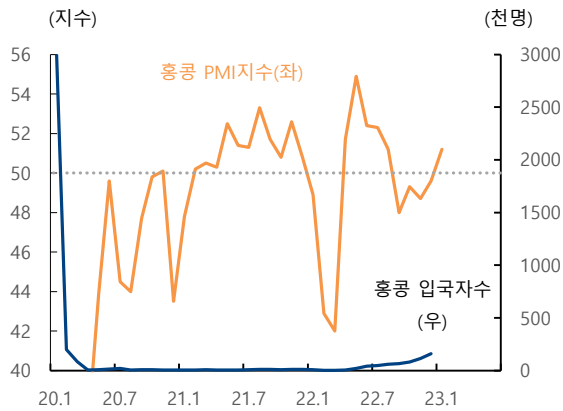


그림4.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2월 1일~20일 기준): 반도체 등 IT 수출의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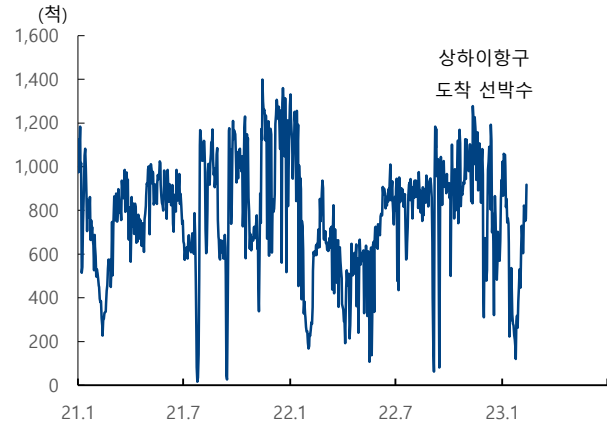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그림5. 본토보다 먼저 리오프닝에 나선 홍콩 지표의 개선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그림6. 상하이 항구 도착 선박수도 연초를 바닥으로 개선되고 있음



■ 만성화되는 국내 무역수지 적자

- 23년 1월 1일 ~ 2월 10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 176억 달러

- 국내 수출경기가 부진 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 무역수지 적자 폭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1월 127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국내 무역수지는 2월 1일~10일까지 약 48억 달러의 적자를 보임
- 1월에 비해서는 그나마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는 기류지만 예상보다는 적자 폭은 큰 규모임. 23년 들어 2월 10일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76억 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억 달러 증가한 수준인 동시에 22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 475억 달러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임
- 규모도 문제지만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음도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큰 리스크임. 국내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매달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경신 중이고 마침내 23년 1월 월간 기준 적자폭이 127억 달러로 처음으로 월 100억 달러를 넘어섬

-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적자 폭 확대의 주요인은 에너지 수지 악화 및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부문 적자 폭 확대지만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도 무역수지 적자 기조 및 적자폭 확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국내 무역수지의 효자 역할을 하였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5월 상하이 봉쇄조치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 이후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임. 22년 대중 무역수지가 12억 달러의 흑자라고 하지만 22년 하반기만 보면 29.6억 달러의 적자임. 특히, 23년 1월 대중국 무역수지가 39.7억달러로 이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적자임

■ 무역수지 적자 개선될까?

-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나 중국 경기 반등이 관건

- 겨울철을 지나면서 국내 무역수지 적자 폭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액이 계절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임. 더욱이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유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2월 이후 에너지 수입 감소로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 폭도 축소될 것임

- 문제는 대중국 수출임. 국내 주요 수출지역 중 큰 폭의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국가(지역)는 중국, 광의로는 중화권 수출임. 중국을 위시해 대만, 홍콩 및 말레이시아 등 중국 경제권 지역의 수출이 동반 부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대중화권 수출 회복 여부가 국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결국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리오프닝 효과와 이에 따른 반도체 등 IT 수출 반등이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당사는 3월부터 대중화권 수출 및 무역수지가 점진적이지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3 월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관련하여 중국보다 리오프닝을 먼저 한 홍콩 경제지표가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상하이 항구내 선박 도착 건수의 회복세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궁극적으로 국내 수출 및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